조감도

인천 송현지구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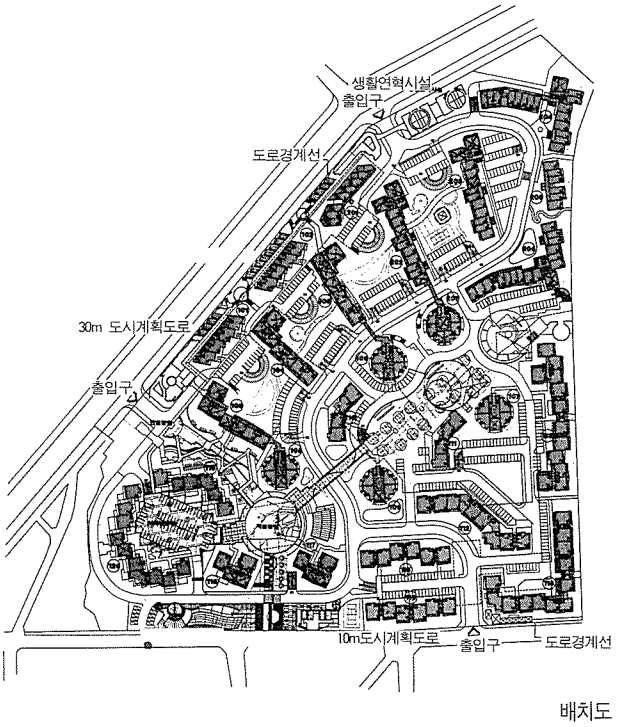
Apartment of Songhyeon District, Incheon-shi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쾌적한 단지조성과 최대한의 실내공간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송현지구에 대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2월 15일 무영종합건축(안길원+손광민)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8개 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에 장건축(오택길)안이, 가작으로는 다원건축(김영택)안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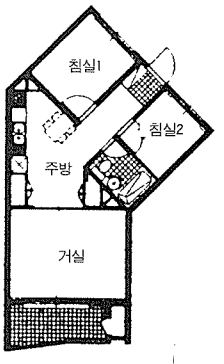
무영건축
(안길원+손광민)

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44번지 일원
대지면적 / 93,782.2㎡
건축면적 / 1,687.1㎡
연면적 / 232,817.4㎡
건폐율 / 19.34%
용적률 / 268.22%
계획담당 / 주창혁, 최대성, 진근수, 조영선, 김영훈, 김영우, 주경호, 최정봉, 김경순, 정영경, 차병철, 임창수, 박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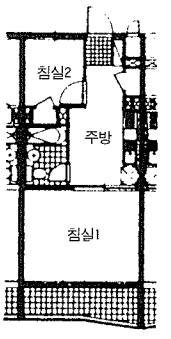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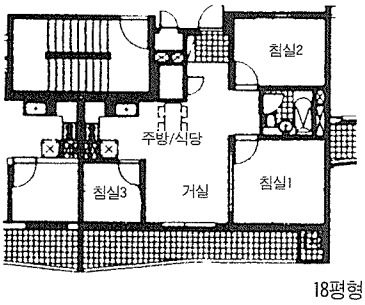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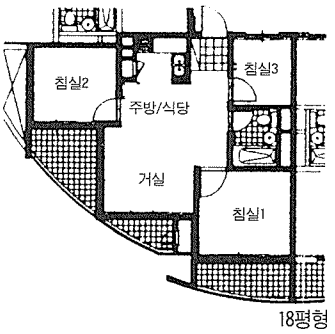
15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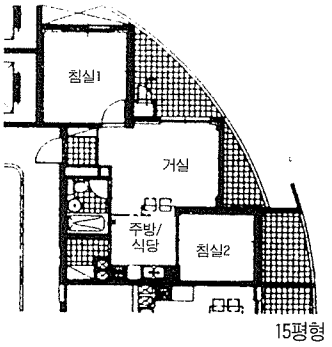
12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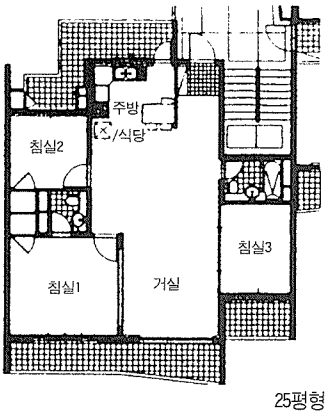
18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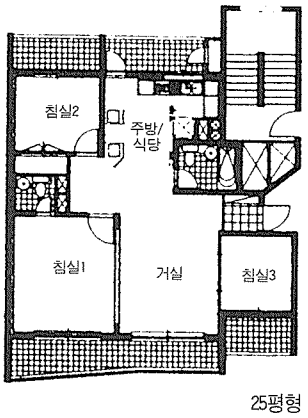
18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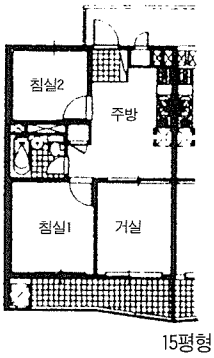
15평형



25평형



25평형



15평형

단위세대 평면도

이 사업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이자 도심형 공동주거로서 장래 사회 · 경제구조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패턴과 주생활 가치관의 변화에 대응하고, 거주자층의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적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도시형 주거를 제안하는것이 계획의 주된 목표였다.

그리고 계획지의 입지적 조건은 동인천역과 중심시가지의 근처에 위치하고 360°의 파노라마가 전개되는 구릉지 끝단에 입지하고 있고 도시계획공원과 인접하는 우수한 입지조건을 형성하며 경사지로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상징성과 구심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구릉지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어 북서쪽의 서해, 동쪽의 도시계획공원과 산의 경치가, 그리고 남쪽으로 중심시가지가 펼쳐져 조망이 매우 좋아 계획상 주요 잠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지계획의 주된 개념은 50m 경사지의 고저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도시계획공원과 연계하여 환경공생의 생태적인 주거환경을 모색하는 것과 커뮤니티(community)를 재구성하는 것이 계획상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대두되었다.

우선, 환경공생의 주거단지 창출을 위하여 계획지에 인접한 도시계획공원을 활용하여 거주민에게 쾌적성과 공공성을 제공하여 주는 잠재요소로 이용하고 이를 계획요소로서 설계에 적용하여 계획지의 공원녹지축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중심축을 설정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생하는 환경생태적인 쾌적한 주거단지 창출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중심축의 결절부에는 2군데의 중앙광장을 배치하여 지역주민과 지구주민이 상호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하는 거점역할로서 기능하도록 하고 지역과 접점이 되는 외곽부에는 선형의 상가시설을 배치하여 가로변에서의 위압감을 경감하고 도로와 주거지와의 완충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거지의 아이덴티티(identity)와 커뮤니티(communtiy)를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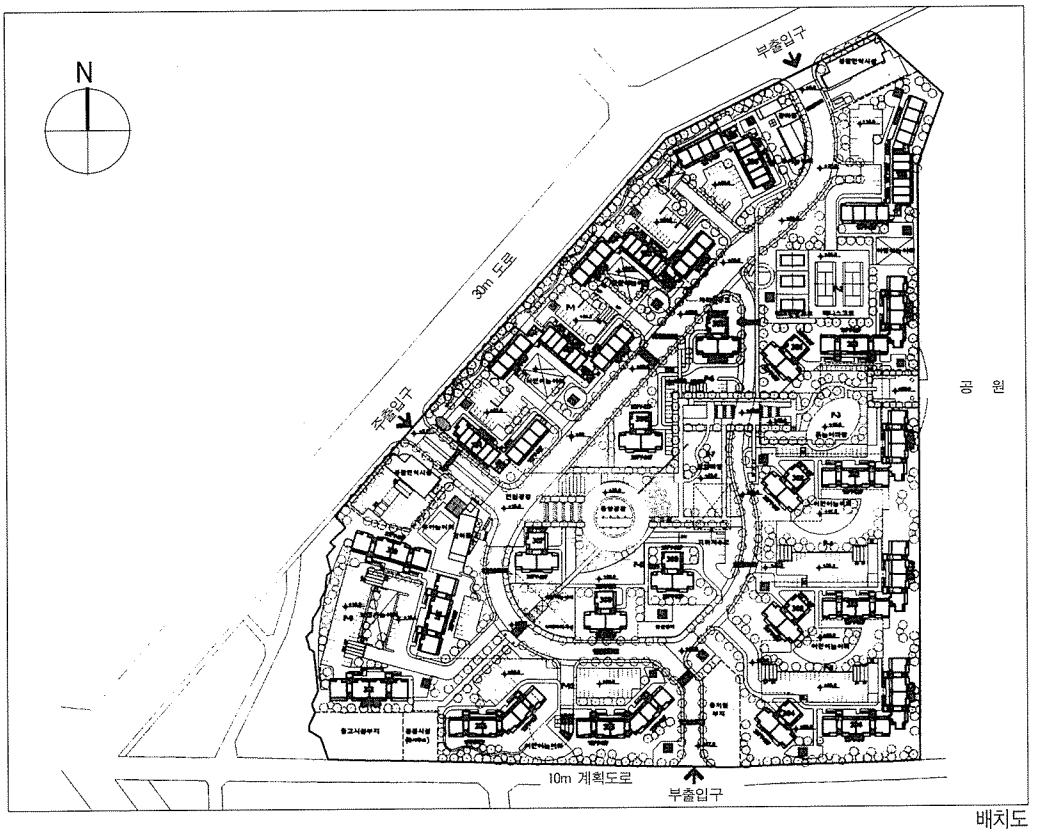
동선계획은 거주자를 위한 통로와 쇼핑 등의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일상생활 동선과 보행자 입구로 동선을 유도하여 인접 도시계획공원과 연계되는 레크레이션 동선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골격으로 북서사면의 임대 Zone과 남서 · 남동사면의 분양 Zone으로 구분되어지는 주요공간구조의 골격을 구성하였다.

우수작

장건축(오택길)

대지면적 / 93,781.82㎡
(가용대지면적 / 92,094.21㎡)
구조 / 벽식 R.C조
건축면적 / 13,741.61㎡
건폐율 / 14.92%
용적률 / 273.69%
건설호수 / 12평형-609세대
15평형-616세대
18평형-919세대
25평형-891세대
계 : 3,035세대

조감도



배치도

기본방향

-단지는 순환도로에 따라 구획되는 중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
-임대동과 분양동의 인위적 경계는 지양하고 단지 중심에 근린광장 및 체육시설을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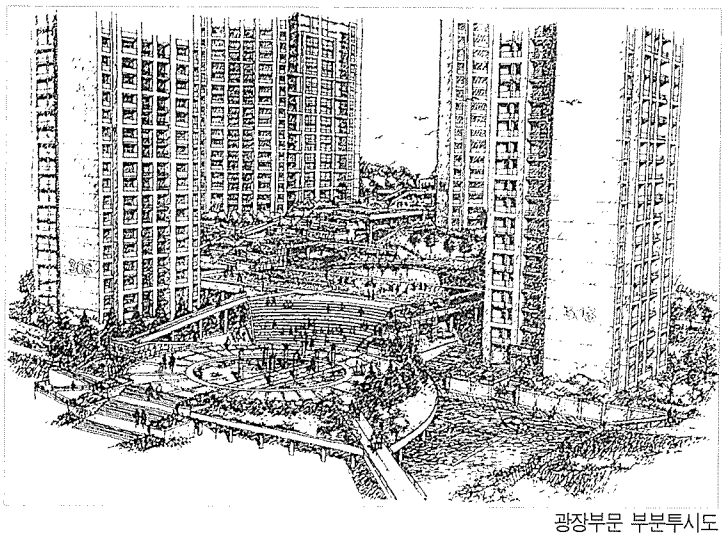
중심지역

-단지 중심의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한 주거지역이 단지의 여러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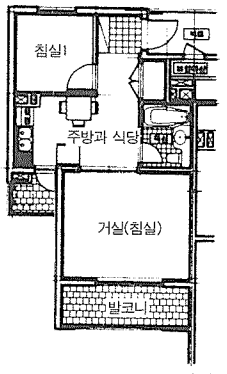
외곽지역

-도시가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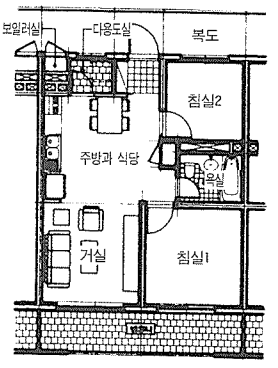
- 30m가로에 면하여 도로면과 상당한 표고차를 이루면서 가로경관을 형성, 북향, 소음 등 악조건의 대처가 필요한 지역
- 가로를 향하여 반복되는 형태로 건물 외관을 이룸
- 가로면에는 15층으로,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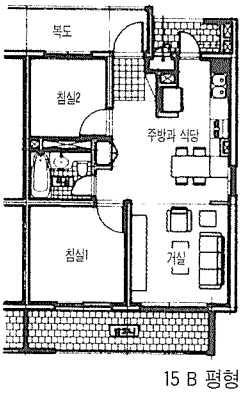
광장부문 부분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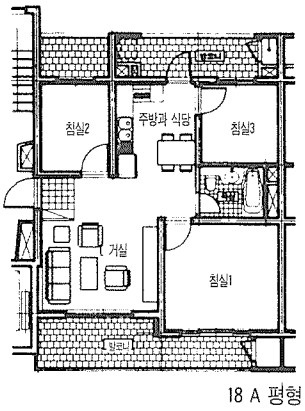
12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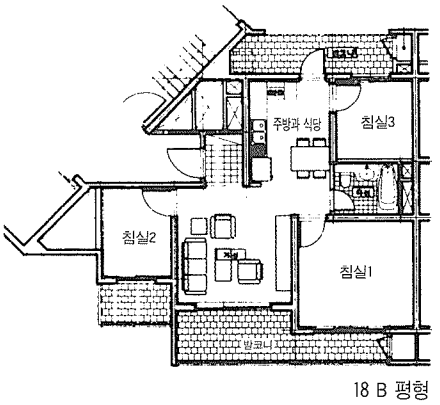
15 A 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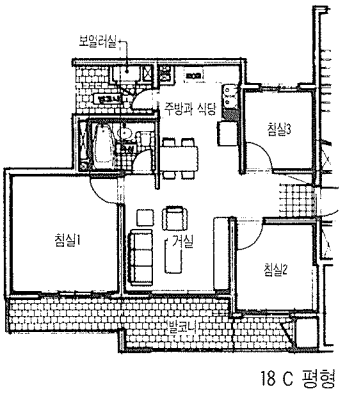
15 B 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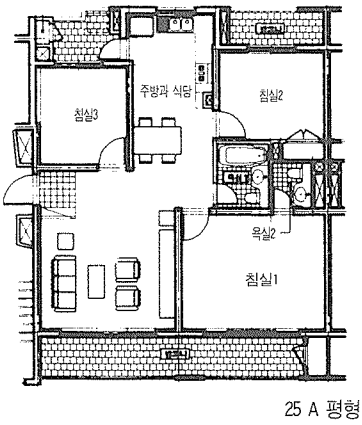
18 A 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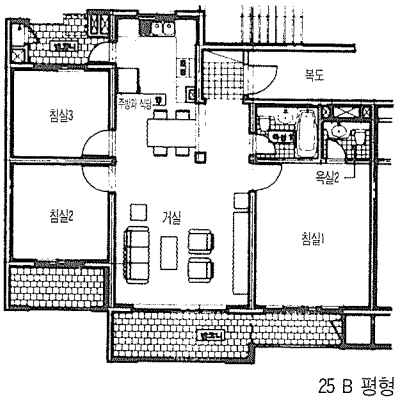
18 B 평형



18 C 평형



25 A 평형



25 B 평형

단위세대 평면도

내부는 23층까지의 높이 변화
- 복도를 소음차폐요소로 고려하여 임대동을 배치

–기존주거지역
- 남측 기존주거지역과 접하는 지역
- 원만한 시각적 접속을 감안, 다양한 건물 높이와 형태의 건물 배치

소주구의 형성

–주거건물군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Cluster를 형성하면서 소주구 단위로 구성 150~300세대 수용

–소주구 단위로 기존 지반변에 따라 각기 다른 표고의 마당을 가지면서 전 단지를 계단처럼 조성

–소주구의 안마당에는 각 건물의 입구로 연결되는 차로, 보행로, 지상주차장, 놀이터와 정원 등을 갖춘 활성화된 동네의 마당으로 조성

건물유형

–외곽지역 : 적극적인 소주구형성을 위하여 소단위 마당을 중심으로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하여 장소적 귀속감을 부여

–중심지역 : 중심 근린공원에의 개방된 공간조성을 위하여 타워형 건물군의 배치